

# “청년포교, 다차원적 접근·지혜 전하자”

## 청년포교 활성화 전문가 제언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다수 종교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종교인구 변수를 포함시킨 1985년 이후 청년기 인구 중 불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이웃종교의 청년기 인구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톨릭의 청년인구 비율은 20년전 전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구의 변화는 사회적 지형을 바꾸고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인식태도, 문화의 양태를 변모시킨다. 특히 미래사회는 현재 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떤 종교적 가치관을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된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05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청년기의 불교인구 비율은 20대 전기 19.7%, 20대 후기 18.9%, 30대 전기 18.4%, 30대 후기 20.7% 등이다. 개신교 인구 비율은 20대 전기 18.7%, 20대 후기 17.1%, 30대 전기 17.5%, 30대 후기 17.9% 등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인구 비율은 20대 전기 12.2%, 20대 후기 10.2%, 30대 전기 9.7%, 30대 후기 10.0% 등으로 주요 종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은 이미 전체 청년기 인구의 10%를 넘어서서 불교와 개신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교세를 확보하였다.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불교인구 비율은 지난 10년 전의 조사에 비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 미래불교 연결고리

불교계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종교 활동은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종교와 연속선상에 있다. 청년기에는 종교 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군인대시 훈련소에서의 포교활동 결과에 따라 새로운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 활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을 진학할 경우 대학생활에서 종교를 선택하면서 삶의 양식이 바뀔 수도 있다.

반면에 30대의 종교 활동은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더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부분 청년들은 30대에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아이들을 종교시설로 데려가는 것은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30대의 종교인구 비율은 바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종교인구 비율과 상관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 포교는 미래 불교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교계의 청년 불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잘 내세우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자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거나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30대 청년들의 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여름 수련회이자 포교대회인 2008년 8월 '제27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어보고 있다. 침체된 청년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욕구와 라이프스타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청년 감소, 어린이 포교 부재 원인

#### 20~30대 포교, 범불교적 관심 요망

#### 생활패턴·육구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

#### 문화·스포츠·취업에 불교 관심 가져야

극적인 신행활동은 불교의 사회적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불교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행활동은 불교계 전반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주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된다.

### 육구·취향 알고 맞춤형 포교를

침체에 직면한 불교계에서 청년포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기의 생활패턴과 사회적 육구 등을 고려한 포교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같은 청년기라고 해도 성별에 따라 그리고 연령별로 20대와 30대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즉,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전략은 성별, 연령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과 종교적 육구, 그리고 종교적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전기의 남자들 중 다수는 군대에서 생활하고 20대 중기는 대학생활을 하고, 20대 후기는 직장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에 여자는 20대 전기에 대학생활을 하고 20대 중반 이후부터 학업을 마치고 사회 생활에 돌입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대의 남자는 군대, 대학 등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에 여성들은 대학과 직장 중심의 포교활동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을 제외하면 20대는 포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교수불자연합회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들은 사비로 장학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고, 대학생 불자회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대학생 포교는 물론이고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포교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속초 설악산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신홍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웃종교계에서는 서울 지역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숙소를 지원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효과적인 포교 방법 중 하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최근 학비가 너무 비싸져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장학금을 선발하고 4년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각 종단과 주요 사찰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20대는 취업·대안적 삶

최근 20대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취업이다. 때문에 각 대학에서도 취업관련 동아리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반면에 종교관련 동아리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미래에 불안감을 털어버릴 수 있는 지혜를 증강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청년 포교의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0대 청년층들 중에서는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 외국을 방문하거나 어학연수 및 단기 취업비자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에 있는 사찰들과 연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구촌공생회 및 정토회 등과 같은

국제구호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템플스테이 이용자의 연령분포를 분석해 보면 20대 및 30대 참가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도 20대와 30대의 참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20대와 30대 청년층이 문화체험에 특히 관심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청년층의 문화체험은 향후 종교 활동 및 수행체험과도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찰에서는 지역의 청년층이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30대는 생활체육·자녀교육

30대 청년층은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종교 활동과 여가 활동이 많이 부족한 세대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젊은 패기로 도전하며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진격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여가활동은 생활체육이다.

특히 30대는 스포츠 동호회 활동과 친구들과 사이의 친목도모를 일찌시기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같은 연령대의 동료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스포츠를 통해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도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여러 종목별 생활체육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체육에 대한 열풍 때문에 종교단체에서는 경기장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교 사찰들은 주로 농어촌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찰들도 있다. 이들 사찰들은 생활체육에 필요한 운동장을 확보하고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한 포교방법이다. 이러한 생활체육 포교는 30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설악산 신홍사배 축구대회 및 전통문화 가족마당 축제'가 있다. 설악산 신홍사는 설호 축구단과 야구단을 창단하였으며 2001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축제한 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축구단의 경우 30대부터 60대까지 4개 부에 각각 약 16개 팀이 참여하여 경쟁을 하고 있다. 야구팀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자를 가린다. 여기에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하는 8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연인원 약 2만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만들었다.

신홍사의 한마당 축제는 기획부터 행사당일의 프로그램 진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활동력이 좋은 30대를 필두로 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30대 청년층은 부부, 부모, 자녀, 친구 등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포교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톨릭 등 이웃종교에서는 30대를 중심으로 하는 '아버지 학교'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자녀들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행착오 없는 아버지의 역할을 경험하도록 지도한다.

### 청년에게 도움이되는 포교정책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 교구, 단위사찰, 청년단체 등에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종단 차원에서는 전국의 청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미지 제고와 상징체계 구축, 미래의 비전과 지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종단에서는 청년들이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삶보다도 유익하고 가치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교구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사회의 종교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청년들의 종교적 육구, 이용 가능한 시설과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파악하고 청년포교에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해인사에서 백중 우란분절에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주관하는데 이는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고려한 적절한 포교방법이다.

각 사찰에서는 지역 청년단체들과 연계하여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천태종 구인사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매입해 줌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구인사에서 중무원으로 일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이 지역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청년포교활동의 사례이다.

청년포교는 각 종단과 사찰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청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하지 못하였고, 가정적으로도 육아부터 주택마련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지출도 많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또한 청년 전기의 연령층들은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때에 불교계에서는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칠 필요가 있다. 청년 시절이 신행활동 참여는 불교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불교계가 자각해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조 회 동 주 부주 지 실 주 당 지 부주 지 현 승 원 남 등 봉 암 조 전 운 근 해 각 호 일 승 성 성 석 선 도 등 원 구 이 호 절 우 주 선 운 해 견 권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연수국장 현조

사부대중일동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정국장, 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둘째·셋째주 토요일(1박 2일) 신묘정구대다라니찰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거리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회 주 실 주 지 태 금 자 공 산 자 월 도 성 주 영 우

총 기 교 재 사 호 포 무 획 무 회 법 교 원 화 대 해 덕 원 지

신도회장 청광 김백호 외 사부대중 일동

부 설 전 북 불 교 회 관 전 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서원노인복지관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룠비니 어린이집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